

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

2014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 제3차 콜로키엄

일시: 2015년 4월 17일 (금) 16: 00~18: 30

장소: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310호

주최: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

초대의 말씀

벚꽃이 만발한 계절입니다. 가내 두루 평안하시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

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는 <한·일고전문학 속 비일상 체험의 형상과 일상성 회복의 메타포-콜로키엄을 통한 한일공동연구의 지평확장 모색->이라는 연구과제가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 3년 과제로 선정되어 오는 4월 17일(금)에 제3차 콜로키엄을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310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. 이번 콜로키엄은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에게서 <기적과 신이, 경험과 상상의 카니발>이라는 기획 테마를 가지고 평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.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. 다음과 같이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.

2015년 4월

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정 형

단 국 대 학 교 일 본 연 구 소
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

한·일 고전문학 속 비일상 체험의 형상과 일상성 회복의 메타포

-콜로키엄을 통한 한일 공동연구의 지평확장 모색-

사회 : 윤채근(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)

◆ 제1단계 주제 : 한·일 고전문학 속 비일상 체험의 형상과 일상성 회복의 메타포

-기적(奇蹟)과 신이(神異), 경험과 상상의 카니발-

세부 주제 : 문명충돌, 균형과 틈입

16:00~16:50 강상순(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)

17:00~18:30 지정토론 - 윤채근(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)

엄기영(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)

무라마츠 마사아키(선문대학교 일어일본학과)

이권희(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)

◆ 발표자 프로필

* 전공

- 한국고전소설

* 주요저서 및 논문

- 『귀신 요괴 이들의 비교문화론』 (소명출판, 2013, 공저)

- 「김시습과 성현의 귀신 담론과 원귀 인식」 (우리문학연구 44, 2014)

- 「필기 야담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귀신관과 사후관」 (종교문화연구 22, 2014) 등 다수